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2월을 “민족회개의 달”로

한기총, 전 교회에 참여 호소

풍랑 만난 조각배처럼 작금 우리의 조국은 심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병든 사람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떠내려 가는 모습은 우리 민족 전체를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안타까움에 빠지게 한다.

무엇이 우리나라를 이 모양이 되게 만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대하 29:8).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청소

에서 없이 하라”(대하 29:5).

특별히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들의 성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멀리 떠나왔다. 오늘도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나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들어야 한다.

“다윗은 장로들과 더불어 굶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행악자는 곧 내니이다” 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금은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마

■... 우리 교회에서는 1월 첫 주(순례자)를 통해 민족적 회개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1월 23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2월을 민족회개의 달로 선포, 모든 한국 교회가 이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여기에 이 운동의 취지와 실천사항을 다시 게재한다...

음을 찢고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7천만 동포들이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을 불리 일으켜 기울어가는 국운을 반전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선언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선언과 실천

- ① 우리는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로 믿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좇던 불신, 불충, 불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자복한다.
- ② 우리는 이같은 회개운동을 거국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1998년 2월 한 달을 ‘민족회개의 달’로 정하고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극기의 삶을 산다.

- ③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때 민족의 살 길이 있음을 믿고 이를 국민정신으로 승화하도록 힘쓴다.

“경건과 절제”

13학기 목회자세미나

제 3학기 서울성경대학

3월 30일부터 월·화·목에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에서 개최하는 제 1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3월 30일(월) 강남 YMCA대강당에서 개강한다.

6월 1일까지 매 주 월요일에 계속될 이번 학기의 주제는 “경건과 절제”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측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세대와 무절제한 삶이 가져온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치유키 위해 이번 학기의 주제를 이처럼 정했다고 밝혔다.

제 1교시는 이종윤 목사의 강의를 통해 로마서를 심도있게 강해하는 법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제 2교시는 주제 특강으

로 이어지게 된다.

이번 학기 특강의 제목과 강사를 살펴 보면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배경식 교수), “경건과 리더십”(김기홍 교수), “1907년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사회변화”(민경배 교수), “한국 교회 각성운동의 방향”(이만열 교수), “IMF 시대의 목회자의 의식 변화”(고무송 목사),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최래옥 교수), “목회자의 의상과 절제”(정장복 교수), “건강과 절제생활”(김일순 교수),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관리”(이연옥 이사장), “목회자의 경건과 교회 부흥”(이상근 목사) 등이다.
(4면에 도표)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가 3월 30일(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학기에는 욥기(아담반)를 비롯하여 사사기, 에스더, 히브리서, 빌립보서 등의 성경을 공부하며 음악교실도 두 번째 학기의 문을 연다. 이번 학기 강의 시간은 월·화·

목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 1시간씩이다.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개설한 성경대학의 강좌, 시간, 강사는 <표>와 같다.

등록 문의는 사무국.

서울성경대학 제 3학기 교과과정표(3~6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사사기	월요일 오전 10시	김정현 목사	3월 30일
에스더	월요일 오후 8시	민영수 목사	3월 30일
히브리서	화요일 오전 6시	이순환 목사	3월 31일
빌립보서	화요일 오후 8시	박귀환 목사	3월 31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4월 2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이연숙 집사	4월 2일

이사야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런 미래

2장 1-4절

이사야 1장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상과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셨습니다.

1.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말일에 여호와와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2절).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 산에 있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위치한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던 산으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그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법을 주신 시내 산보다 더 높은 것이 바로 메시야가 오시는 시온 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인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피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 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시93:1-2).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되시는 메시야가 오시어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은총의 시대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권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설 것이라고 예언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합니다. 뛰어나게 하는 것, 높아지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요동치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높은 곳에 우뚝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몰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만방이 산으로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일반계시이고 또 하나는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친구약성경을 통해 계시된 것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말일에 여호와와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2:1-4).

이종윤



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말미암아 진리가 온 세상에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큰 축복이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면 신앙을 가질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3.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많은 백성이란 여러 민족을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의 뜰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만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의 백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오르신 것과 다시 오실 것 등과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회는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3. 복음이 임하는 날 평화가 올 것이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평화의 복음이 임하여 전쟁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매를 맞아야 마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주시고, 만민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모인 이들에게만 평화를 주시겠다는 영광스런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IMF 시대와 기독교 청년

이 글은 1월 18일에 개최된 대학·청년부 연합토론회에서
이만열전도사(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가 강연한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IMF 시대에는, 과거 이를 경험한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예로 보아,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량의 실업 그리고 물가고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이미 예고 되어 있다. 개인과 가정은 물론 우리 교회도 고통과 시련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IMF를 불러온 경제위기의 원인은 관치(官治)금융, 재벌들의 방만한 부실경영, 정부의 무능과 정책부재 및 국민들의 물가지각한 낭비癖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간섭하의 통제경제가 자율적인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상의 허점이 외환위기를 불러 왔다는 지적과, 또 하나 미국과 그 조종을 받는 국제금융업자들이 중국 및 동양권 경제를 길들이려는 일종의 국제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유념해야 할 점은 기독교적 관점의 요인 분석이다. 즉 한국 교회의 잘못된 축복사상과 물질주의가 사회의 부정직과 퇴폐적·향락적인 문화를 거부하거나 개혁하지 못하고 거기에 동조, 추종, 협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저 넓은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 유다를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시켜 징계하였다.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창녀의 집을 찾는 등 극도의 퇴폐·향락상을 보이니 이런 일을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이런 백성에게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다(렘5장).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퇴폐와 종교적 타락을 두고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 그렇다면 이 징계 앞에서 한국 기독교계와 한국민은 재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한다.

둘째는 시련(시험)으로 보는 관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종종 시험한다. 이 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는 말씀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받을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이다(고전10:13). 그러므로 시험 받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약1:2), 시험을 참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도록 노력해야(약1:12) 할 뿐만 아니라 시험 후에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징금같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욥23:10).

IMF체제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계와 기독교 청년은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정직과 신용, 근면, 절제와 절약의 가치관 위에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정직과 신용, 근면, 절제와 절약의 가치관 위에 재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은 합리주의 정신과 함께 자본주의를 형성시킨 근본 정신이다. 이 근본 정신은 바로 칼빈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왔다.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자본주의가 발생한 곳과 칼빈주의적 프로테스탄트가 번성한 곳을 연결시켜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직과 신용, 근면, 절제와 절약 등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는 먼 거리에 있는 만큼 한국 기독교계는 윤리없는 허약한 한국의 자본주의를 윤리있는 건강한 자본주의로 개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땀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시키는 그릇된 교훈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땀 흘리는 소득을 강조함과 동시에 경건과 절제가 몸에 배도록 생활화해야 한다.

또 하나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복 사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요한삼서 2절을 들어 ‘삼박자 축복’을 강조하는 유아적인 ‘복 사상’에서 벗어나 마태복음 5장 3-12절에서 주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35절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 사상’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IMF 시대에도 남에게 더욱 줄 수 있는 풍성한 사람이 되고, 복족의 어려운 동포와 제 3세계를 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IMF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과 차별성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IMF 시대, 기독교 청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 IMF 시대를 맞게 된 원인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재고하고 이어 토론회를 통해 기독교청년으로서의 반성과 비전 및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반성

- ① 신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분법적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 ②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을 계속해 왔다.
- ③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매우 부족했다.

▶비전

- ① 21세기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자.
- ② 각자 처한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자.

▶실천사항

- ①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에 의한 정직과 신용, 근면, 절제와 절약에 힘쓴다.
- ②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 ③ 충동구매를 자제하자.
- ④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자.
- ⑤ 전기와 수도물을 아껴쓰자.
- ⑥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



98년은 학원과 군부대 복음화를 위해

대학신입생 초청 대회 개최 · 군선교 비전2020 발족

올들어 군부대와 학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선교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98년은 선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과 학원에 대한 활발한 선교활동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송구영신예배 시 98년이 전도의 한해가 되도록 기도한바 있어 이들에 대한 선교는 교회적으로도 남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원선교를 위한 대학 신입생 초청 비전대회가 16일(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영락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연목회와 고목회의 주관으로 우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 자리에서 두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기독교 학생들이 함께 대학의 방향을 바로 잡도록 방향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대회의 대회장을 맡고 있는 이종운 목사는 “이번 대회의 성과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 대회를 내년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초청대회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군복음화후원회 이사회는 군복음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사회를 개최, 비전2020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에 이종운 목사, 본부장에 이필섭 장로(전 육사교장, 합참의장)를 본부장으로 추대했다. 이사회는 이 위원회를 통해 향후 22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구체적인 군복음화 전도전략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매년 20만 명에 이르는 장병이 세례를 받도록 하며 이들을 민간인 교회와 연결시켜 미래 교인으로 등록, 관리케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워 시행키로 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해마다 육사신입생 세례식을 주관하고 있으며 자매 부대인 68사단 복음화를 위해서도 온 성도가 기도해오고 있다.



신혼·예비부부를 위한 새가정부 7일(토) 시작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를 위한새가정부가2월 7일(토)에 시작된다. 새가정부의 프로그램은 성경적 결혼생활과 신앙 중심의 가정생활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집회는 매주 토요일 7시부터 302호실에서 가진다.

목회자신화세미나 제 13학기 프로그램

“경건과 절제”

제1교시	제2교시
로마서강해 이종운 목사 (서울교회)	경건주의 운동과 교회갱신 배경식 교수(한일신대)
	경건과 리더십 김기홍 교수(아신대)
	1907년 한국교회 회개운동과 사회변화 민경배 교수(연세대)
	한국교회 각성운동의 방향 이만열 교수(숙대)
	IMF 시대의 목회자의 의식변화 고무송 목사(열린전원교회)
	목회자의 언어습관과 강단 최태욱 교수(한양대)
	목회자의 의상과 절제 정장복 교수(장신대)
	건강과 절제생활 김일순 교수(연세대)
	목회자의 가정과 교회 관리 이연옥 이사장(서울여대)
	목회자의 경건과 교회 부흥 이상근 원로목사(대구제일교회)

◆ 순례자 컬럼 ◆

양심기금제도를 만들자

태양 없는 해시계가 무용지물이듯 하나님 없는 인간 양심은 아무 가치가 없다. 타락한 인간 양심은 수천 개의 혀를 갖고 혀마다 자기 얘기를 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양심의 소리를 들은 이들은 젊은 시절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기념하고 싶어 사용하던 손가락을 호주머니에 넣고 온 일, 공금을 유용하거나 남용한 일, 배달되어야 할 소포를 뜯어 제 주머니에 넣은 일 등 아득히 먼 옛 일이라도 이것들을 돌려 보내고 싶어한다.

연방 양심기금(Federal Conscience Fund)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인들은 이같은 돈이나 물건은 국고에 귀속시키기 보다는 양심회복운동에 사용한다고 한다.

우리사회에도 양심기금제도가 있어야겠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일(월) 기독교연합신문 창간10주년기념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 ◆강주형 · 임혜원 성도(7교구 안암다락방, 허장자 권사 아들 · 자부) 가정은 29일 득녀했다.
- ◆오늘 점심식사는 탁경준 · 전정숙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학원선교 · 군선교를 위해
3. 목회자신화세미나와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